

팬시용품 닮은 '작고 가벼운' 책들

선물용으로 청소년층에 인기 ... 가벼운 책읽기로 이끌 우려

김기태

출판평론가, 광주대·인하대 강사

유네스코가 정한 일반적인 책(도서)의 기준에 따르면, 표지를 제외하고 본문이 49쪽 이상 되어야 하고 반드시 제본이 되어 있어 야만 책(book)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물론 이는 출판통계를 내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어긴다면 일단 일반적인 책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출판업계의 인식이었다. 그래서일까, 서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들은 어김없이 이런 기준에 충실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더 두껍게, 더 호화롭게 발전해 온 것이 현실이다.

팜플렛에 가까운 책들

그런데 요즘 서점가에는 이런 풍조에 반란이 일어날 낚새가 나타나고 있다. 문고본이 아닌 시리즈 형태의 단행본들이 속속 미니 혹은 팬시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형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쪽수도 적고 내용도 적어서 잠시 훑어보기만 해도 금세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미니화·슬림화·팬시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책들과 팜플렛에 가까운 책들이 서점 한켠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것은 아예 제본이 되어 있지 않아 낱장으로 흘러지기도 하고, 몇자 끄적여 우표만 붙이면 바로 엽서가 되는 책들도 있다. 그럼에도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

예컨대 삼성출판사에서 펴낸 이른바 <100과사전> 시리즈, 대만 첨단출판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대희미디어에서 펴낸 <1997 신세대 별자리가이드북> 시리즈, 미국 엑슬리 퍼블리케이션과 독점계약을 맺어 유니온기업주식사에서 펴낸 <주고 싶은 책, 받고 싶은 책> 시리즈, 예림당에서 펴낸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 Birthday Book> 시리즈 등은 4×6판 이하의 크기에 40쪽에서 60쪽 안팎이면서도 책값은 권당 3천원에서 5천원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100과사전> 시리즈와 <Birthday Book> 시리즈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출판사의 <100과사전> 시리즈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스튜디오 바프의 아트디렉터 이나미씨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것으로,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다이어트·스트레스·영화·재즈 등을 주제로 삼아 각각 100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8

감각적인 신세대 취향의

주제를 양증맞은 디자인과

특독 튀는 편집으로 만들어낸

'미니화·슬림화·팬시화' 한

책들이 서점 한켠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작고 가벼운

이들 책이 다양한 출판경향의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청소년들을 가벼운 책 읽기로

이끌 우려가 있다.

종이 선보였다. 가로 11.5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의 크기에 50쪽을 약간 넘는 <100과사전> 시리즈는 다분히 감각적인 신세대 취향의 주제를 양증맞은 디자인과 활자의 조화 속에 담아내고 있어 특히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예림당의 <Birthday Book> 시리즈는 4×6판 크기에 38쪽의 분량으로 만들어졌는데, 1년 365일과 윤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을 포함, 모두 366일을 각각 한 권에 담아내고 있어 모두 366권으로 완간되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1995년 3월에 첫 권이 나온 이래 이듬해 3월까지 꼬박 1년여 만에 완간된 <Birthday Book> 시리즈는 낱마더의 특별한 의미, 즉 그날의 꽃·별자리·역사적 사실 등을 신세대 취향에 적합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책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선 예쁘다. 그리고 소재와 주제가 모두 단순하면서도 톡톡 튀다. 아울러 자기가 읽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청소년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로는 하늘사다리에서 나온 <카드북> 시리즈, 열림사에서 나온 <사랑만들기> 시리즈가 있다. 이들은 제본되지 않은 그림엽서 형태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값은 2천원에서 4천원.

한편, 일반적인 단행본이라기보다는 얇은 잡지 형태로 무거운 주제를 쉽게 대중들에



신세대 취향의 작고 예쁘고 가벼운 책들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게 소개하려는 시도도 있다.

미니화·슬림화·팬시화

자유기업센터에서 발간한 <자유나라> 시리즈는 자유시장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짧은 글들을 모아 권당 30쪽 안팎의 중철 제본된 책으로 <20세기가 주는 일곱가지 교훈>(폴 존슨), <경제력과 정치권력이 다른 이유>(루드비히 폰 미제스) 등 4권이 나왔으며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책값은 권당 5백원.

또한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에서 펴내고 있는 <배이직 시리즈> 역시 판형은 일반단행본과 비슷하지만 50쪽 정도의 중철 제본 형태로 마치 잡지 또는 팜플렛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스도>, <현신>, <우선순위> 등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책값은 권당 1천2백원. 이 책들은 특정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으로 주제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미니화·슬림화·팬시화로 치닫는 양상은 오늘날 독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해지고 있는 출판경향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기획 및 편집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추세가 점차 정착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진지한 독서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지 않아도 방대한 양의 고전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요약(다이제스트)된 것만 읽고 지나치는 경향 때문에 비판의 소

리가 높은 마당에 이러한 출판경향은 청소년들을 가벼운 책읽기 또는 예쁜 책 소유하기로 이끌 우려가 있다. 읽음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사색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지금까지의 책에 대한 관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이퍼백 형태의 책을 제작하는 공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쇄 및 제본 기술에 비추어 보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독자들의 몫이 되어 책값 상승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고품질·고가격 시대라지만, 그리고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다지만, 단순히 책이라는 통념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부류의 책들은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작고, 가볍고, 예쁜 책들은 신세대들의 욕구와 맞물려 팬시제품들의 기능까지 통합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첨단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종이책의 존재여부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시점에서 출판계의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책이라는 모습을 유지하고,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독자를 향하는 이상, 이를 기획하고 만드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한순간의 인기에 연연하거나 팔기 위한 눈가림이 아닌, 새로우면서도 정말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